

국힘-민주당, 자본 앞에 앞으로나란히

50인-50억 미만 중재법 적용 유예 중단 촉구대회 ... “윤 정권, 경총 대변 거짓 선동”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개약을 시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자들이 여야 당사 앞에서 개약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벌였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합원 들이 12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약 중단 촉구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수정당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400여 명의 노동자가 전국에서 모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월 3일 당정협의회에서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억 원)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라면서 “이렇게 대놓고 유예하려는 개약은 오직 재벌과 자



본에 혜택을 몰아주겠다고 공표하는 행위다” 라고 분노했다.

윤택근 직무대행은 “국회와 정권이 한통속이 돼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에 걸맞은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 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임무다. 이것을 어기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라고 윤석열 퇴진 투쟁 결의를 다졌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인 손덕현 부위원장은 “중재법 적용 유예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적게 죽고,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많이 죽어도 된다는 뜻인가” 라면서 “정권이 아예 경총을 대변하며 거짓 선동에 동참한다. 우리 노동자 투쟁으로 파열구를 내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본 대회 이후 국민의 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민주노

총과 금속노조 등 대표자들이 중재법 개약에 반대하는 시민 60,017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려 했으나, 격에 맞지 않는 삼선 슬리퍼를 신은 실무자를 내려보내 사실상 서명지 수령을 거부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장은 더불어민주당 앞마무리 집회에서 “6만 시민이 직접 서명한 서명지다. 민주당 은 경찰이 둘러싸인 길거리에서 그냥 전달받겠다고 했다” 라며 “우리는 서명지를 길거리에서 전달하지 않겠다” 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국민의 힘은 자본가들이 서명한 5만 명 서명지를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전달받았다” 라며 “노동자의 의지를 노동자들 죽인 자본가들보다 천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서명을 전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항의 행동 전개 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약 저지 촉구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이 개약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국회의원 상대 직접행동 등에 나서겠다고 투쟁 계획을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용승계 2차 원정투쟁

4일 도쿄 닛토그룹 영업본사 투쟁 ... 6일까지 일본 노조 지원 모임과 연대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일본 자본 닛토덴코에 구미공장 먹튀 중단,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2차 일본 원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지난 4일 도쿄 닛토그룹 영업본사를 방문했다. 지회는 닛토그룹에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긴박한 경영 악화 또는 사업양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노조와 고용안정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닛토덴코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청산을 강행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해 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라며 “닛토덴코가 금속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이 같은 교섭 요구를 공문으로 닛토덴코에 전달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도쿄 닛토그룹 영업본사에서 “일본 본사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을 평택 한국닛토옵티칼로 빼돌렸다” 라며 “물량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도 당연히 승계해야 한다. 닛토덴코는 대화에 즉각 나오라” 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6일까지 닛토덴코 본사에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현지에서 구성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조를 지원하는 모임’ 동지들과 연대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지회와 일본 동지들은 일본 전역에 닛토덴코가 저지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일방 청산과 고용승계 거부,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시도 등 탄압사태를 알리고, 닛토덴코그룹이 ‘먹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 공동투쟁을 벌인다.

닛토덴코는 공장 화재 후 공장 수리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고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청산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평택 한국닛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닛토 자본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닛토옵티칼을 설립하고 17조 원의 이윤을 남겼다. 천문학적인 이윤을 가져가고도 노동자 12명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 한국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